

## 야곱의 맹세

(창28:10-22)

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. 그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.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?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맹세하였습니다. 이것을 위대한 신앙의 행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첫째 야곱의 맹세의 말들은 그 초점이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빠뜨리신 것, 당장 급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?

두 번째 야곱의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에 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도 종종 이러하지 않습니까?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종종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.

세 번째 야곱의 이러한 맹세의 말은 유대인의 전형적인 사업거래 하는 식의 말입니다. 이전에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팔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진 장자권을 샀습니다. 이제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업 거래식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맹세를 하는 야곱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? 하나님께서 나 뿐만 아니라 가족의 필요한 이러 저러한 것들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?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.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.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조건을 들어주면 섬기고 안 들어 주면 볼 일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. 들어주시던 아니 들어주시던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.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